

# 급변하는 국제환경을 발전의 기회로



정 장 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

**금**년은 우리 정보통신진흥협회와 회원사들이 합심노력하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을 도약시켜야 할 중요한 해가 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정보통신부의 경상현 장관은 중요 정책방향으로 ① 민간의 자율화 존중 ② 정부의 행정규제 최소화 ③ 업계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두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체제 아래 기본통신 다자간 협상이 '96년 4월 30일을 협상종료 시한으로 진행되는 등 시장개방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외전화, PCS, 위성방송 등 새로운 사업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급변하는 국내외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추어 관련업계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산하 통신사업자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자간 역할 분담의 조정 및 제휴 등 상호협력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WTO체제 출범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교류협력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규제는 완화하면서 산업표준은 국가표준과 세계표준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의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국제기구의 참여, 정보의 신속한 입수와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셋째, 정보사회의 심화에 따른 역기능과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정보윤리위원회 활동은 불건전정보의 규제차원에서 사업자의 자율정화로 건전정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보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및 시민운동 전개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또한 정보윤리위원회 산하기구인 불건전정보 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일반인의 정보인식을 전환하는 등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넷째, 멀티미디어 협의회, 초고속 정보화촉진 민간협의회 등의 업종별 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속에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하고 관련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매제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정보통신 관련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화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인 흐름이며, 이는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년 새해를 맞아 우리협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회원사 여러분의 사업이 날이 번성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